안방극장 '미드' 리메이크 바람 분다

tvN '굿 와이프' 이어 미국 HBO 코미디드라마 '안투라지' 한국판 다음 달 4일부터 방송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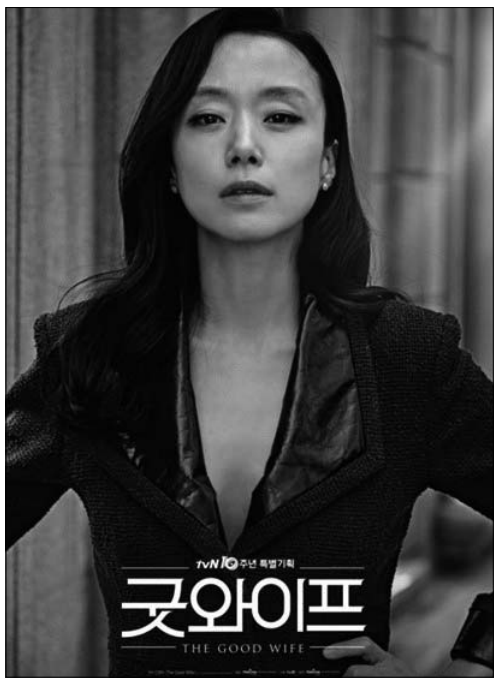
한국 리메이크 드라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최근 대중의 시선이 일본드라마보다는 미국드라마로 쏠리면서 리메이크 작품 또한 이른바 '미드'(미국 드라마)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재 한국 드라마의 최신 유행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받는 tvN은 지난 7월 미국 CBS의 인기드라마 '굿와이프'의 한국 버전을 만든 데 이어 미국 HBO의 코미디드라마 '안투라지'의 한국 리메이크판을 다음 달 4일부터 방송할 예정이다.

또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가 내년 상반기부터 CBS의 스릴러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한국판 촬영에 들어간다고 알리면서 미드 리메이크에 조금씩 불이 붙는 모양새다.

아직 작품수가 많지 않고, 확실한 한방을 보여준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으며, 케이블 채널에 한정돼 있기는 하나, 최근 흐름으로 볼 때 미드 리메이크 드라마가 과거 '일드'(일본 드라마)처럼 꾸준히 리메이크 돼 제작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tvN은 지난 7월 미국 CBS의 인기드라마 '굿와이프'의 한국 버전을 만든 데 이어 미국 HBO의 코미디드라마 '안투라지'의 한국 리메이크판을 다음 달 4일부터 방송할 예정이다.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

먼저 미드 리메이크의 가장 높은 장벽이었던 선정성 문제가 더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런 추세를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 인기 있는 미드는 'CSI' 시리즈 같은 장르물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이런 드라마들의 성(性)·범죄 묘사가 한국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최근 10여년간 케이블 채널을 중심으로 표현의 범위를 점차 넓혀왔고, 이제는 장르 불문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내보내고 있다.

최초 미드 리메이크 드라마인 '굿와이프' 또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높은 수위의 장면들을 수차례 방송하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지점에서 '안투라지' 연출을 맡은 장영우 PD가 지난 25일 이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장 PD는 '안투라지'에 대해, "한국 방송심의 수준을 뛰어넘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안투라지'의 성패는 미드 리메이크 드라마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드라마 수위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서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본다"며 "다만 수많은 미드 중에 어떤 걸 골라 잘 리메이크 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드라마 평론가 윤석진 충남대 교수 또한 "미드의 표현 수위는 이제 한국 드라마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제 미니시리즈는 영화처럼 독립된 콘텐츠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미드 리메이크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제작비도 큰 문제 없다

지난 2005년 미드 유행을 선도한 '프리즌 브레이크'의 회당 제작비는 30억원 수준이다. 비슷한 시기 방송된 KBS의 대작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회당 제작비는 약 3억원이었다. 단순 비교이기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계는 인기 미드를 리메이크하기에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2013년 방송된 첩보드라마 '아이리스2'의 제작비가 회당 8억원 수준이었을 정도로 국내 드라마 제작비는 상승했다.

여기에 드라마 한류로 인해 콘텐츠 수출이 용이해지면서 더 많은 제작비를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일례로 뉴(NEW)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에 130억원이 투입했는데, 해외 수출(회당 25만 달러)·판권 계약만으로도 제작비 이상을 벌어들였다.

'태양의 후예'와 같은 '대박'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한국판 '안투라지' 또한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9개국에서 동시 방송된다.

이렇듯 국내 미니 시리즈 드라마는 더 이상 내수용에 그치지 않는다. '왕좌의 게임'(회당 제작비 100억원)과 같은 대작 드라마가 아니라면 웬만한 규모의 미드는 국내에서도 리메이크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미드 리메이크에 대해 "물론 제작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니다. 한류스타를 반드시 캐스팅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재미가 보장된 미드를 리메이크할 수 있다면, 손해는 안 볼 수 있다. 영화에만 출연하는 배우들도 드라마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게 미드 리메이크로 보인다"고 말했다.

◇굳이 일드를 리메이크할 이유가 없다?

한국 드라마 업계 현실상 리메이크는 피할 수 없다. 지상파 3사의 미니 시리즈는 기본 8주 단위로 돌아가고, 케이블 채널 드라마까지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극소수 유명 작가를 제외하면 오리지널 극본을 쓸 수 있는 작가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드 리메이크는 국내 드라마 수요를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는 의미다.

최근 업계에서는 어차피 리메이크 드라마가 필요하다면 굳이 일드를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나라 드라마 수준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시청률 하향 평준화 시대에 로맨스물 위주의 일드로는 승부를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드라마 평론가 윤석진 교수는 이와 관련, "미드 리메이크는 한국 드라마 '장르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굿와이프'와 '안투라지'만 봐도 기존에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 없던 작품들이다. '안투라지'가 성공을 거둔다면, 미드 리메이크는 케이블 채널을 넘어 지상파 방송사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다음달부터 열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리허설인 테스트이벤트가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열린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8일 "각종 경기장과 기반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총 26개의 올림픽·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진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테스트이벤트를 통해 개최 도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운영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테스트이벤트에는 세계 90여 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5500여명, 방송과 기자단 4500여 명, 관중 6만7000여 명, 자원봉사자 2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루지와 봅슬레이·스켈레톤 종목의 국제훈련기간, NOC 선수단장 세미나 등 비경쟁·비경기 이벤트도 각각 2회씩 4회 열린다.

테스트이벤트 공식 홈페이지(www.hellopyeongchang.com)를 통해 입장권 예매, 무료입장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

JTBC '썰전', 최순실 사태 집중조명 최고 시청률

'비선 최순실'을 집중적으로 다룬 종합편성채널 JTBC 시사예능프로그램 '썰전'(연출 김은정·박범준·강미소·윤해양)이 시청률 6%를 넘기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28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썰전' 190회는 전국 평균 시청률 6.13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방송 전 '썰전'의 평균 시청률은 4~5%대를 오갔다. 지난주 방송된 189회 시청률 또한 4.5%였다.

'비선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썰전' 제작진은 긴급녹화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방송은 이번 파문에 대한 정치권 인사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형태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구상찬 전 의원 등이 출연했다.

기존 멤버인 유시민 전 장관과 전원책 변호사의 '비선 최순실' 관련 토론은 다음 주 방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뉴시스

레인보우, 7년 만에 해체 "각자의 길로"

그룹 '레인보우'가 데뷔 7년 만에 해체한다.

소속사 DSP미디어에 따르면 레인보우 일곱 멤버는 오는 11월 12일 DSP미디어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다.

DSP미디어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레인보우의 김재경, 고우리, 김지숙, 노을, 오승아, 정윤혜, 조현영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나눴지만, 아쉽게도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인보우는 지난 2009년 EP '가십 걸'로 데뷔했다. 당시 같은 소속사인 그룹 '카라'를 잇는 걸그룹으로 주목받았다. 2010년 'A'로 반짝 스타덤에 올랐으나 이후 큰 히트곡을 내지 못했다. 올해 2월 발표한 네 번째 미니앨범 '프리즘'이 마지막이 됐다.

/뉴시스